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년)	
		평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 축 첫영성체 *



6월16일(일) 중고등부 학생, 청년 6명이 첫영성체를 합니다.

첫영성체를 하는 중고등부 학생, 청년들이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알 림

- 6월 병자 영성체는 6월14일(금)에 있습니다.
- 6월 19일(수) 11시 소성전에서 경로당 월레미사가 있습니다.

◎ 다음 주일(6/16)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18구역	청 소	12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5월 29일 ~ 6월 04일)

교무금	7,573,000원
주일헌금	5,257,100원
감사헌금	박용숙20만원 신기자200만원 송명순 5만원 김옥봉10만원 심점순 5만원 신종구 5만원 박옥연 5만원 임형석10만원 박홍민10만원 박미옥10만원 이영숙 1만원 이종호50만원 양OO5만원 ME5만원 2구역국수잔치 5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6/09	박혜선	조흥환 김영균	임종윤 권태희
6/16	백희자	오성환 신종구	윤상기 정재경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6/09	옥윤필	이화봉 이운영	손상민 장인홍	오광운
6/16	최승일	최영만 최창렬	최석준 황태영	하재민

◎ 모 임

단 체 명	일 시	장 소
2Cu.-사도들의 모후	6월 09일(일) 12:00	강 당
1Cu.-우리어머니	6월 09일(일) 12:30	보스코홀
임원 모임	6월 12일(수) 20:00	식 당
울뜨레아	6월 23일(일) 11:40	강 당

◎ 예비신자 교리반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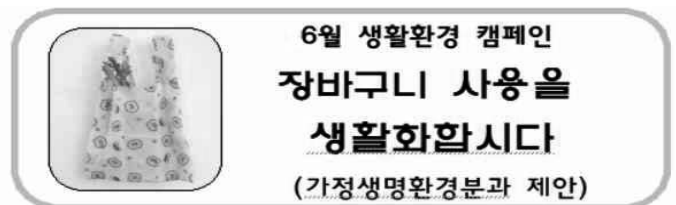
- 주일반(일, 오전 9시), 평일반(화, 오후 8시)
-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 본당 방호원 모집 (계약직)

- 대상: 세례 받은지 3년 이상 된 신자(자격증 우대)
- 주요업무: 시설관리, 방호, 미화 등
-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증명서, 본당 주임신부 확인서
- 마감: 채용시까지(우편 또는 방문)
- 채용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개별통보)
- 제출방법: 방문 및 우편(주소 주보 상단 참조)

◎ 묵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운동

- 지향 :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 묵주기도 10단에 묵주알 1개를 봉헌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봉헌함은 성전 입구 우측에 있습니다.



성가번호 ♪ 입당 : 401 ♪ 예물준비 : 511, 512 ♪ 영성체 : 164, 166 ♪ 파견 : 22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찬미 받으소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97.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다른 이들에게 권유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연과 관계를 이루시면서 큰 사랑과 경탄으로 자연에 관심을 기울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사시던 지역의 구석구석을 다니시다가 잠시 머무시면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심어 놓으신 아름다움을 음미하시고는,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도록 당신 제자들에게 권유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할 때가 되었다.” “하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된다.”

98. 예수님께서는 피조물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사셨기에 다른 이들이 놀라워하였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그분께서는 세상과 떨어져 사는 금욕 주의자의 모습을 하지도 않으시고 삶의 즐거운 면을 적대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여 술꾼이다!’ 하고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육신과 물질과 세상 현실을 경멸하는 사상들과는 매우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불건전한 이원론은 역사를 통하여 일부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쳐 복음마저 왜곡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물질에 당신 손으로 날마다 장인의 기술을 발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생애 대부분을 이러한 일, 전혀 경탄할 것도 없는 단순한 일로 보내셨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노동을 신성한 것으로 만드시어 우리가 성숙하는 데에 노동이 특별한 가치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노동의 수고를 참아 냄으로써, 인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의 아들과 협력하고 있다.”

99.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이해에 따르면, 한처음부터 계셨던 그리스도의 신비에 모든 피조물의 운명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요한 복음의 머리글은 그리스도의 창조 활동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머리글은 놀랍게도 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의 한 위격께서는 피조 세계에 오셔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운명을 이 세상과 함께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는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특히 강생을 통하여 자연계 전체에서 감추어진 방식으로 자연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습니다.